

## ◎ 世界經濟 先進國 鈍化勢, 交易量도 줄어들 듯

韓 基 周  
 <産業研究院動向分析室 責任研究員>

### 1. 概 觀

지난 1987년 10월 세계주식가격의 대폭락은 세계경제가 마침내 대공황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심각히 자아내었다. 그러나 그후 세계경제는 대공황에 접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80년대 초와 같은 경기침체에까지 이르지도 않았다. 각국의 적절한 정책대응과 선진국간 정책협조에 힘입어 오히려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80년대 후반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의 활발한 성장세는 물가불안을 야기시켜 先進各國은 드디어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90년에 성장둔화를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先進各國이 경기변동에 맞추어 신속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보여 경기둔화는 급격한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美國과 日本, 유럽 국가간의 금리격차가 줄어들고 달러貨價値는 다시 약세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世界貿易量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89년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國際原資材價格은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2. 成長・物價

#### 1) 成 長

지난 83년부터 88년까지 6년 동안 경기확대국면을 지속해온 세계경제는 89년부터 서서히 成長勢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90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의 성장률은 88년의 4.2%에서 89년 3.5%, 90년 3.1%로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90년의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둔화는 先進國들의 경제가 금융긴축기조 유지 등으로 인하여 89년보다 부진해지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開途國들의 경우 先進國으로의 輸出增大가 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는 工產品輸出開途國들은 先進國景氣鈍化로 인하여 89년보다 경기가 저조해질 것이다. 그러나 中南美國家들은 政情安定 등의 요인으로 인해 89년보다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1) 先進國

88년중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던 先進國經濟는 89년 상반기에는 油價上昇과 內需急增에 따른 物價不安으로 인하여 급격한 경기둔화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오면서 油價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內需도 진정되기 시작하여 금융긴축을 강화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경기는 완만한 둔화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89년의 先進國經濟는 88년의 4.4%보다는 낮

지만 3.5%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90년에도 89년 하반기의 성장둔화 추세가 이어져先進國 평균 성장률은 2.8%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전망되는 것은先進各國이 89년에 이어 90년에도 인플레이를 우려하여 금융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美國은 성장둔화에 따라 금융긴축을 다소 완화할 여력이 생길 것이나 물가불안이 크게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대폭적인 금융완화는 전혀 기대되지 않고 있다. 또한日本과 유럽諸國도 인플레이 압력으로 인하여金利를 오히려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美國은 이밖에 그래프-루드만-홀링스 財政收支均衡法으로 인하여 財政赤字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어 財政政策面에서도 景氣鈍化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西獨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財政政策에 있어서는 확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90년중先進國들의 民間消費支出은 89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며 企業設備投資는 이와 반대로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國別로 90년의 民間消費支出 增加勢를 살펴 보면 美國은

耐久財消費가 다소 부진할 것이나 여타 부문의 소비가 활기를 띠어 總消費는 89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며 日本은 그동안의 경기호조, 임금상승을 반영하여 民間消費支出이 89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의 경우 西獨과 프랑스는 조세감면 등의 영향으로 民間消費支出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 반면 英國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民間消費支出이 크게 부진할 전망이다.

한편先進國들의 固定投資는 대체로 89년보다 增加勢가 약화될 전망이다. 美國의 경우 企業設備投資는 수출부진 등에 의한 가동률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89년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건설투자는 저당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89년의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日本도 金利上昇으로 인하여 投資熱氣가 89년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활기를 띠므로써 여타先進國보다는 높은 投資增加率이 예상된다. 한편 EC諸國의 民間設備投資는 89년중 전년비 7% 정도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오는 92년 EC經濟統合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에는 금융긴축에 따른 금리상승에 따라 투자분이 점차 수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海外部門을 보면 美國은 輸出伸張勢 鈍

世界 經濟成長率 展望

〈表-1〉

(單位: %)

	1988	1989				1990			
		DRI	WEFA	IMF	KIET	DRI	WEFA	IMF	KIET
世界	4.2	-	3.5	3.1	3.5	-	3.2	2.9	3.1
先進國	4.2	-	3.4	3.5	3.5	-	2.6	2.9	2.8
美國	4.4	3.0	2.9	2.9	2.9	1.6	2.0	2.1	2.0
日本	5.7	5.1	4.7	4.9	5.5	4.6	4.0	4.4	4.5
西獨	3.6	4.3	3.9	4.0	4.2	3.7	2.9	3.0	3.5
프랑스	3.8	3.5	3.6	3.4	3.5	2.5	2.7	3.0	3.0
英國	4.4	1.9	2.1	3.0	2.2	1.6	2.8	2.7	1.8
開途國	3.4	-	3.8	3.2	3.7	-	4.3	4.0	4.2

資料: 産業研究院, 「1990년 世界經濟 展望」.

化로 貿易赤字가 다시 增加,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日本은 이와 반대로 油價下落 등으로 貿易黑字가 증대되면서 海外部門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의 경우 西獨은 輸出增加勢 鈍化로 海外部門이 성장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英國은 輸出回復과 큰 폭의 輸入增加率 下落으로 貿易收支가 크게 개선, 成長에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이러한 部門別 요인을 기초로 각국의 90년 성장률을 예측해 보면 美國은 89년의 29%보다 낮은 2%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日本은 89년의 5.5%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유럽은 투자부진이 주요인이 되어 EC 평균 성장률은 89년 3.4%에서 90년에는 3.1%로 소폭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西獨의 성장률은 89년 4.2%에서 3.5%로, 프랑스와 英國은 89년의 3.5% 및 2.2%에서 90년에는 3.0% 및 1.8%의 성장률을 각각 나타낼 전망이다.

## (2) 開途國

90년중 開途國經濟는 아시아 開途國들은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中南美國家들의 성장호조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開途國 평균 성장률은 89년의 3.7%보다 높은 4.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地域別로 보면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경우 成長鈍化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國別로는 台灣의 경우 89년에는 수출호조, 소비확대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90년에는 對美貿易黑字累增에 따른 환율의 추가절상 압력으로 수출부진이 예상되고 임금상승으로 투자도 위축됨으로써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홍콩은 중국사태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쇠퇴한 가운데 노동과 자본의 급속한 해외 유출로 경기가 급속히 부진해질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는 아시아지역의 輸入需要鈍化와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둔화가 예상된다. 또한 韓國도 輸出不振이 주

요인이 되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中東地域은 이란·이라크終戰 및 이란의 실용주의 노선 표방 등으로 걸프灣 國家들의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域內經濟協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89년보다는 낮으나 開途國 평균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中南美諸國은 89년에는 제로성장에 머물렀으나 90년에는 3~4%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많은 中南美國家들이 民選政府의 출범으로 정치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브래디플랜의 진전으로 外債負擔이 줄어들게 되고 각국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건설·제조업 등에서의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한 것이다.

## 2) 物 價

先進國들의 物價는 89년에는 활발한 성장의 결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 消費者物價의 경우 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5%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90년에는 先進各國의 금융긴축에 따른 內需伸張勢鈍化와 油價下落에 힘입어 消費者物價上昇率은 4%로 낮아질 전망이다.

주요 국별로 90년중 消費者物價上昇率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美國의 消費者物價는 89년에는 油價上昇과 製造業稼働率上昇에 따른 原資材 공급애로 등으로 인하여 前年比 5% 가까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90년에는 경기둔화로



主要 先進國의 消費者物價 上昇率 展望

〈表-2〉

(單位: %)

	1988	1989				1990			
		DRI	WEFA	IMF	KIET	DRI	WEFA	IMF	KIET
美 國	4.4	4.9	5.0	5.1	4.9	4.2	4.1	4.9	4.1
日 本	0.7	1.8	1.8	2.2	2.2	1.7	1.7	1.6	2.0
西 獨	1.2	3.2	3.1	3.0	2.8	3.1	2.6	2.7	2.6
프 랑 스	2.7	3.6	3.5	3.5	3.2	3.1	3.0	3.0	2.7
英 國	4.9	7.6	7.5	7.7	7.6	5.6	5.6	3.8	6.0
O E C D	3.3	-	-	4.5	4.5	-	-	3.9	4.0

資料: 〈表-1〉과 同一.

需要牽引(demand-pull) 인플레이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美聯準이 인플레이억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으로 보여 消費者物價上昇率は 4%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日本의 消費者物價는 89년에는 엔貨弱勢에 따른 輸入工產品價格 上昇과 油價上昇 그리고 활발한 內需伸張勢 등의 영향으로 인해 88년의 0.7%보다 크게 높아진 2.2% 내외의 상승률이 예상되며 90년에는 金利引上 등으로 인해 이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西獨과 프랑스도 景氣鈍化와 함께 인플레이압력이 다소 누그러져 消費者物價의 경우 89년보다 낮은 2.6% 안팎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한편 英國의 消費者物價는 높은 임금상승률 등으로 인해 89년보다는 낮으나 6%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3. 國際貿易

#### 1) 貿易伸張率

세계경기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89년중 前年比 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世界貿易量은 90년에는 주요 先進國들과 아시아工產品 輸出國들의 경기둔화로 인하여 5%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1) 先進國

先進國 전체의 輸入物量은 89년중에는 각국의 활발한 內需增加에 힘입어 前年比 7% 가가

운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90년에는 設備投資를 중심으로 한 內需伸張勢의 위축으로 인해 5%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國別로 90년 輸入物量增加率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先進國總輸入 가운데 1/4 가량을 차지하는 美國의 輸入은 內需가 89년과 비슷한 신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달러貨 弱勢에도 불구하고 輸入物價가 國內物價보다 소폭 상승에 그침으로써 物量增加率이 89년의 4.3%에서 4.5%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日本의 輸入物量은 民間消費支出이 더욱 활기를 띠고 엔貨도 強勢를 보임으로써 89년의 7.5%보다 높은 7.8%의 증가율을 기록, 先進國가운데 가장 활발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 주요국들의 輸入은 美國, 日本과는 달리 90년에 크게 부진해져 EC 전체의 輸入物量增加率은 89년의 8%에서 5%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89년에 강력한 신장세를 보였던 EC各國의 실비투자가 90년에 크게 위축됨으로써 輸入需要가 저조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 西獨의 輸入物量增加率은 民間消費支出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89년의 9%보다는 낮으나 6%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英國은 內需가 전반적으로 크게 부진해지면서 輸入物量增加率이 89년의 10%에서 2%로 급격히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90년중 先進國들의 輸出은 세계적인 輸入需要萎縮으로 인해 89년보다 완만한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國別로 보면 美國의 輸出物量增加率は 세계 경기둔화와 89년의 달러貨強勢 영향지속으로 인하여 89년의 12%보다 낮아질 것이나 先進國 평균 輸出物量增加率 5.5%보다는 높은 7%를 나타낼 전망이다. 日本의 輸出은 활발한 技術開發과 원가절감 성공으로 국제경쟁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세계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첨단기술제품을 중심으로 輸出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輸出物量增加率は 89년의 5%보다 높은 5.5%가 예측된다. 한편 EC各國의 輸出은 EC景氣鈍化에 따라 89년보다 부진해져 EC 전체의 輸出物量增加率は 89년의 8.5%에서 5.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開途國

開途國 전체의 輸入은 89년에는 對先進國 輸出好調과 油價上昇에 따른 石油輸出國들의 交易條件改善 등에 힘입어 物量基準으로 前年比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90년에는 對先進國 輸出不振 등으로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輸入物量增加率が 6%로 낮아질 전망이다.

地域別로 보면 아시아 NICs 등 工産品 輸出開途國들의 輸入은 對先進國 輸出不振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89년에 비해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여타 開途國들보다는 높은 輸入增加률을 지속할 것이다. 石油輸出開途國들의 輸入은 90년중 油價下落과 石油輸出不振에 따른 景氣鈍化로 인해 89

世界 貿易增加率 展望(物量基準)

<表-3>

(單位: %)

		1988	1989			1990		
			DRI	IMF	KIET	DRI	IMF	KIET
世	界	9.0	7.7	6.9	7.1	4.5	5.7	5.2
先 進 國	輸出	8.9	-	7.4	7.2	-	6.0	5.5
	輸入	9.5	7.7	6.4	6.8	4.0	5.6	5.0
美 國	輸出	20.5	12.6	12.5	12.0	6.5	7.1	7.0
	輸入	6.0	4.6	4.1	4.3	4.4	7.2	4.5
日 本	輸出	5.1	3.3	6.0	5.0	3.5	7.4	5.5
	輸入	16.7	5.2	6.6	7.5	6.3	7.7	7.8
E C	輸出	7.0	-	7.3	8.5	-	5.6	5.3
	輸入	9.2	9.0	7.0	8.0	4.2	5.4	5.0
西 獨	輸出	7.4	10.6	11.1	11.0	2.2	6.0	4.5
	輸入	6.6	12.5	8.0	9.0	6.1	6.4	6.0
프 랑 스	輸出	7.8	8.2	7.8	8.2	3.8	6.9	4.3
	輸入	6.1	8.2	6.2	8.0	5.4	5.7	5.5
英 國	輸出	1.5	4.6	1.9	3.0	7.1	4.0	5.0
	輸入	13.0	8.8	5.9	10.5	-0.9	1.7	2.0
開 途 國	輸出	10.9	-	6.6	7.0	-	5.9	5.8
	輸入	10.2	7.8	8.7	8.0	6.0	6.1	6.0
石油輸出國	輸出	11.6	-	5.8	8.0	-	4.1	5.0
	輸入	3.5	1.0	5.0	4.0	4.0	3.7	3.7
非石油開途國	輸出	10.7	-	6.8	6.5	-	6.5	6.2
	輸入	11.9	9.1	9.5	9.0	6.3	6.7	6.5

資料: <表-1>과 同一.

經濟그룹別 經常收支 展望<sup>1)</sup>

<表-4>

(單位: 억 달러)

	1988	1989				1990			
		DRI	WEFA	IMF	KIET	DRI	WEFA	IMF	KIET
先進國	-544	-	-538	-776	-730	-	-228	-696	-580
美國	-1,265	-1,106	-1,061	-1,251	-1,180	-1,154	-956	-1,387	-1,230
日本	796	685	710	720	650	572	822	897	720
EC	151	-	101	59	80	-	132	80	110
西獨	486	514	570	534	590	450	537	568	550
프랑스	-35	-19	-57	-55	-52	-15	-46	-49	-42
英國	-266	-327	-286	-306	-330	-242	-239	-267	-290
開途國	-91	-	-106	-73	-70	-	-163	-163	-160
石油輸出國	-191	-	24	-52	-30	-	-63	-33	-60
非石油開途國	100	-	-130	-21	-40	-	-100	-129	-100
共產圈及其他	-26	-	-39	-25	-	-	-31	-28	-

資料: <表-1>과 同一.

註: 1) 世界經常收支 合計가 0이 되지 않는 것은 각각 집계된 統計의 誤差 때문임.

년보다 저조하여 石油輸出開途國 전체의 輸入物量增加率は 89년의 4%보다 낮은 3.7%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유럽 및 中南美의 非石油 1次産品開途國들의 輸入은 경기확대와 함께 89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開途國들의 輸出은 1次産品과 消費財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總輸出中 60% 이상이 對先進國輸出이기 때문에 先進國景氣鈍화가 예상되는 90년에는 89년보다 부진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90년중 開途國 전체의 輸出物量增加率は 89년의 7%에서 5%로 낮아질 전망이다.

## 2) 經常收支

90년중 先進國들의 經常收支는 대부분 89년과 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낼 전망이다. 美國의 經常收支는 輸出伸張勢鈍화에 따른 貿易赤字增大와 海外債務增加에 따른 對外利子支給增大로 인하여 赤字幅이 89년보다 늘어난 1,2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日本은 油價下落과 元貨強勢에 따른 交易條件 向上으로 貿易黑字가 늘어나면서 經常收支黑字도 前年比 70억 달러 증가한 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한편 EC는 西獨이 旅行收支惡化 등으로 인해 經常收支黑字 減少를 나타내게 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赤字가 늘어나는 반면 英國經常收支는 輸出伸張勢 回復과 輸入增加率 下落으로 89년보다 큰 폭의 개선을 보이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經常收支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開途國들의 經常收支는 90년중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地域別로 보면 石油輸出國들의 경우 油價下落과 輸出物量增加率 下落으로 貿易收支가 악화되는데다 건설증가로 貿易外收支赤字도 계속 늘어나 經常收支는 赤字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非産油開途國들의 경우 아시아開途國들은 輸出不振으로 인해, 中南美開途國들은 景氣回復에 따른 輸入增大로 인해 각각 經常收支惡化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4. 國際金融

### 1) 國際金利

89년중 美國金利는 경기둔화에 따른 金融緩和의 결과 下落勢를 보여 프라임레이트의 경우

年初 11.5%에서 年末에는 거의 10%線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90년에도 下落勢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90년중 경기둔화와 국제원자재 가격안정 등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완화로 금융긴축이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5%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어 인플레이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음에 따라 美 聯準이 금융긴축 기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금리하락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분기별로 프라임레이트를 전망해 보면 90년 1/4 분기에 10% 수준을 나타내다가

2/4분기 9.5%, 3/4분기 9%로 계속 떨어진 후 4/4분기에는 성장이 다소 회복되면서 9.5% 정도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日本과 西獨 등 유럽 주요국들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긴축을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리수준도 89년보다 오르게 될 전망이다.

2) 換 率

美달러貨는 89년중 美國과 여타국간의 금리

美國 金利 展望

<表-5>

(單位: %, 年利)

	1989		1990			
	III	IV	I	II	III	IV
프라임 레이트 <sup>1)</sup>	10.66	10.40	10.00	9.77	9.80	10.00
C D 金利 <sup>2)</sup>	9.00	8.70	8.50	8.30	8.17	8.05

資料: <表-1>과 同一.

註: 1) DRI 展望値로 分期平均 金利.

2) WEFA 展望値로 3個月物 期末金利.

主要 通貨의 換率 展望

<表-6>

(單位: 달러當 各 通貨)

		1988	1989	1990				
				i	II	III	IV	
KIET <sup>1)</sup>	¥	126.0	138.5	138.0	137.5	133.5	127.0	127.0
	DM	1.780	1.790	1.785	1.775	1.755	1.720	1.720
WEFA <sup>1)</sup>	¥	125.0	146.0	145.0	141.0	135.0	129.0	129.0
	DM	1.770	1.900	1.940	1.900	1.840	1.800	1.800
	F·Fr	6.048	6.441	6.582	6.452	6.265	6.165	6.165
	£ <sup>3)</sup>	1.812	1.521	1.486	1.513	1.542	1.556	1.556
DRI <sup>2)</sup>	¥	128.1	134.3	-	-	-	-	127.4
	DM	1.756	1.883	-	-	-	-	1.710
	F·Fr	5.958	6.383	-	-	-	-	5.794
	£ <sup>3)</sup>	1.782	1.635	-	-	-	-	1.578

資料: <表-1>과 同一.

註: 1) 期末換率.

2) 期間平均換率.

3) 파운드當 달러.

原油價 展望

〈表-7〉 (單位: 달러/배럴, 年平均)

	1988	1989	1990
DRI	13.88	16.29	17.07
WEFA	13.6	15.5	14.1
KIET	13.6	16.6	15.4

資料: 〈表-1〉과 同一.

註: DRI는 世界平均油價, WEFA는 아랍라이트 가격, KIET는 OPEC 平均油價 기준임.

非石油 1次產品價格 展望

〈表-8〉 (單位: %, 年平均 上昇率)

	1987	1988	1989		1990	
			IMF	KIET	IMF	KIET
總 指 數	8.6	18.9	-1.7	-0.3	-8.0	-7.2
農 產 物	-4.0	24.3	-0.9	-0.8	-5.6	-4.7
工業用原資材	33.6	8.2	0.4	-1.3	2.1	-2.9
金 屬	19.0	40.3	4.4	2.4	-19.5	-18.3

資料: 〈表-1〉과 同一.

차 지속, 경상수지 개선에 따른 美國經濟의 신뢰회복 등으로 인해 강세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90년에는 달러貨가 완만하거나 다시 下落勢를 나타내어 엔貨의 對달러 換率은 89년말의 138 엔에서 90년말에는 127 엔, 西獨마르크貨의 對달러 換率은 89년말의 1.790 마르크에서 90년말에 1.720 마르크로 각각 떨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달러貨價値가 90년에 다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첫째, 美國의 經常收支가 90년에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둘째, 美國의 金利下落后 日本·유럽의 金利上昇으로 美國과 여타국간의 金利差가 좁혀질 것이며 셋째, 日本과 西獨 등 주요 유럽국가들의 정국안정회복으로 달러貨에 대한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 등이다.

5. 國際資源

1) 油 價

89년초 產油國들의 減産과 빈번한 油田사고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原油價는 하반기에는 OPEC의 초과생산으로 인해 약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반기에 原油價가 워낙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89년의 OPEC 평균유가는 88년의 배럴당 13.6 달러에서 16.6 달러로 크게 오르게 되었다.

90년에는 原油價가 약세를 보여 OPEC 평균유가는 배럴당 15.4 달러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이 전망하는 것은 지난 11월에 열린 OPEC 총회에서 90년 상반기 생산쿼터를 하루 2,200 만배럴로 증대시킬 것을 결정함에 따라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OPEC 내부의 결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非石油 1次產品 價格

非石油 1次產品 가격은 89년 2/4분기 이후 農產物價格이 수확증대로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90년에도 非石油 1次產品 價格은 非鐵金屬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품목별로 보면 農產物價格은 89~90년중 전 세계 곡물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평균 5% 가까이 떨어질 전망이다. 非鐵金屬 價格의 경우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銅價格의 경우 광산파업이 끝나 공급물량이 다시 늘어나는 반면 경기둔화로 수요가 부진해짐에 따라 대폭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알루미늄 가격도 높은 가격으로 인한 공급물량 증대와 이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인해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鉛價格은 88년중 異常暖冬으로 자동차용 건전지 수요가 감소하여 재고가 크게 늘어났었는데 이것마저 아직까지 소진되고 있지 않아 공급압박이 계속되어 가격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연고무를 비롯한 工業用 原資材의 가격도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진으로 인해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